

# 전남 100억이상 대형공사 외지 건설업체가 90% 독식

### 하도급은 14%만 지역업체에 맡겨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지 일반건설업체들이 광주·전남지역의 대형공사 수주권을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외지업체가 대형공사현장 10곳중 9곳을 수주하고도 지역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비중은 10%대에 그쳐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폭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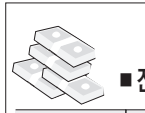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주한 전남지역의 100억원 이상 공사 3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1.6%(33건)를 외지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했다. 또 이들 외지 건설업체가 떠낸 33건의 공사비가 3조4천71억원에 달하면서 전체 36개 현장 공사비(3조5천786억

원)의 95%를 차지했다.

더구나 이들 외지 건설업체는 총 하도급시행액 6천518억원 가운데 도내 전문건설업체에 14%인 943억원만 하도급했다. 외지의 일반건설업체 및 하도급시행공사 10곳중 9곳을 '씩쓸이'한 것이다.

이처럼 각종 공사에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낮은 것은 대형공사를 낙찰받은 외지 대형업체가 하도급 물량 대부분을 자회사나 자사 연구소의 협력업체에 우선 배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외지 대형업체들의 이같은 관행은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은 물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남도회 1천914개 회원사들의 총 공사수주실적은 2조3천



■전남지역 100억이상 대형공사 업체 참여현황

| 주관사    | 건수 | 공사금액   | 하도급 참가내역 |       |       | 전남전문업체 참여율 |
|--------|----|--------|----------|-------|-------|------------|
|        |    |        | 외지전문     | 전남전문  | 계     |            |
| 외지일반업체 | 33 | 34,071 | 5,575    | 943   | 6,518 | 14%        |
| 전남일반업체 | 3  | 1,715  | 219      | 441   | 660   | 67%        |
| 계      | 36 | 35,786 | 5,794    | 1,384 | 7,178 | 19%        |

908억원에 그쳐 2004년(2조5천310억원)과 2005년(2조3천912억원)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 업체의 평균 수주실적도 10억4천만원으로, 2005년(10억7천만원)보다 줄었으며, 전체의 78.5%인 1천806개의 수주실적이 평균을 밑돌았다.

이같은 상황은 광주시외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해 발주한 대형공사 26건의 의무하도급실태를 파악한 결과 해당 공사의 전체 의무하도급시행액(533억원) 가운데 47%(247억원)만 광주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았을 뿐 나머지 53%(285억원)은 외지업체가 차지했다.

▲전문건설업체 = 건설업계는 일반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뉜다. 일반건설업체는 아파트 등을 지을 때 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만큼 규모가 크다. 전문건설업체는 토목공사, 상하수도설비, 도로포장, 실내건축 등 각 전문분야의 실질적 공사를 맡는다. 현재 광주·전남은 3천49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다.

광주는 또 행정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11건의 하도급시행액 250억원 가운데 36%(89억원)만 지역업체가 하도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이상연 사무처장(52)은 "외지 1군업체들이 지역 내 각종 대형공사시장을 사실상 잠식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러닝 박람회, 화상수업 체험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e러닝 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이 화상수업을 체험하며 신기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박람회에서는 e러닝 우수기법 콘테스트 및 제품소개 등 행사가 펼쳐진다.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10회 e러닝 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이 화상수업을 체험하며 신기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박람회에서는 e러닝 우수기법 콘테스트 및 제품소개 등 행사가 펼쳐진다.

# 50% 이상 싼 스테인리스 나왔다

### 포스코 신제품... 강도·품질 기존 제품과 비슷

스테인리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제품과 품질 특성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절반 이상 저렴한 스테인리스 신제품이 개발돼 수요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포스코가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POS445NF는 니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내식성이 기존 제품과 동등 수준이며 가공성도 우수하다.

또 비싼 니켈을 사용하지 않아 현 300계 방연제품의 가격인 492만원의 47% 수준인 230만원에 불과하다.

건축·가전제품·주방용품 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300계 제품을 녹 방지를 위해 니켈을 8% 정도 첨가한다.

2006년 초 1만5천달러이던 국제 니켈가격이 현재 5만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스테인리스 제조업체는 니켈가격 상승분을 최종 제품 가격에 100%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요업체는 수요업체대로 원가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05년 9월부터 비싼 스테인리스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제품에 니켈을 첨가하지 않을 경우 내식성 확

보를 위해 크롬과 같은 합금성분비를 높여야 하는데 이 경우 가공성이 떨어져 제품화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POS445NF는 크롬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불순물을 최소화시키는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공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건축재, 가전용품 소재, 주방기구와 같이 높은 가공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수요업체에서는 값비싼 기존제품 대신 POS445NF를 사용함으로써 원가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올해 POS445NF를 월 2천만 판매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1만만 판까지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 휴대전화 요금 내릴만 한데...

### 이통3사 지난해도 최고 22% '초과이윤'

이동통신 3사가 작년에도 적정 이윤보다 많게는 20%가 넘는 '초과이윤'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과도한 통신비 지출에 짓눌리는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요금 인하 논란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25일 SKT, KTF, LGT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영업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는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103~122%에 달하는 원가보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별로는 SKT의 원가보상률이 전년대와 비슷한 122.55%였다. 이 회사의 원가보상률은 2003년

123%, 2004년 118%, 2005년 122%였다.

이어 KTF는 전년대보다 낮아진 105.06%를 기록했다. KTF의 원가보상률은 2003년과 2004년에 104%를 기록한 뒤 2005년에 109%로 상승한 바 있다.

LGT의 경우 102.99%로 전년대보다 낮아졌다. LGT의 원가보상률은 2003년 96%, 2004년 99%였다가 2005년에 106%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휴대전화 요금의 적정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잣대다.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이면 그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 정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강행 법 통과 안돼도 5,000채 공급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5천채의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된다.

노대래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은 25일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 차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올해 예정된 5천채의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이미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5천채 정도의 물량은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임대주택 펀드를 조성하지 않고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 KÄRCHER 독일카처 특별기획전



... 적외선 감지 지능형 로봇청소기

이제 청소는 카처로보크리너에게 맡기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세요

- 혼자서 청소하고, 충전하고, 쓰레기까지 비웁니다. (충전시간:10분 1시간사용, 타사제품:1시간사용 2~3시간 충전)
- 바닥은 물론 카펫, 방과방사이, 문턱, 침대 밑 청소도 문제 없습니다.
- 흡입력, 최저소음, 쓰레기수집함, 충전재가동, 문턱통과, 추락방지 최고성능인정 (2006년 10월 소비자보호원 조사결과-시중 판매중인 12개사 제품)

카처는 수십년간 크리닝시스템분야에서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70개국 우수디자인상 수상



문의전화 062-655-1022 http://blog.daum.net/karcher

## 산업안전공단-금호타이어 안전관리 상생 협약

한국산업안전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원홍)는 25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대표 오세철) 회의실에서 '모기업·협력업체 상생 파트너십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안전공단과 금호타이어는 공동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협력업체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펼치게 된다.

안전공단은 파트너십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가이드



를 제공하는 한편 각종 기술서비스와 교육, 정보제공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 금호타이어는 6개 사내 협력업체와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장 안전 보건을 추진하는 능력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株) 행복출발은

창사이래 10년동안 오직 재혼만 전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결과 이제는 국내 최대 재혼 회원을 보유하고 최고 재혼교제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 집중조명 되고있는 국내 대표 재혼정보회사입니다.



### 회원수 1위 한국대표 재혼정보회사

초대졸 커플매니저 0명 모집

호남지역총괄 (株)행복출발 (062) 527-3388

다양한 직업의 노블레스 여성회원 다수보유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D) 마들닷컴 >90 을 치세요